

라온아띠 방글라데시팀 September Report

JEONG-RAE NOH, JI-HYUN CHOI, DO-EUN KIM, KYUNG-WON CHOI



한달간의 소중한 기억들

in national memorial park

팀 소개


방글라데시에서 온지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 방글라데시 팀

축구에 대한 한풀고 있는 슈보 노정래
'자전거타는게 너무 좋아요' 오심 최지현
비리시리 힘찬 여자 오토이 김도은
비리시리 태견 소녀 폴리 최경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렇지만 모든 것이 처음이고 신기하기에
또는 한국에서 보다 익숙한 것들이 많았기에
기쁘고 즐거웠던 방글라데시에서의 한 달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월간 일정

Mon	Tue	Wed	Thu	Fri	Sat	Sun
30 - Participate in a community campaign - Play cricket with YMCA				6 Holiday - Ariival Bangladesh (savar traing center)	7 - Briefing about orientation program, Traning center	8 - Learning about bangla language
9 -Bangladesh O.T -Visit national memorial park -learning about language	10 - Bangladesh O.T	11 - Bangladesh O.T - Visit savar local church	12 - Journey for dhaka city - Meeting with president of NCYB	13 Holiday - Journey for Birisiri YMCA	14 -Orientation about Birisiri YMCA activities and staff, youth form	15 - Visit local Church - Learning bagla language - Cleaning campus
16 - Learning bangla language - Cleaning campus	17 - Practice riding bicycle - Learning bangla language - Gardening	18 - Learning bangla language	19 - Practice riding bicycle - Gardenning - Prepare AGM	20 Holiday - Participate AGM	21 -Enjoying Cake fair	22 - Practice riding bicycle - Gardening
23 -Work with Dawapara clinic, NFPE school	24 - Work with Dawapara clinic, NFPE school - Gardening	25 - Learning bangla language - Gardening	26 -Work with Dawapara clinic, NFPE school	27 Holiday	28 - Visit Degapor market	29- - Visit YWCANorway welcome party. 



방글라데시에서의 활동

활동 내용_Savar_orientation bangladesh

- (1) 오리엔테이션 (NCYB 소개 및 방글라데시 기본 정보)
- (2) 방글라데시어 수업
- (3) 사바르 현지 교회 방문 및 유스들과의 교류
- (4) 방글라데시 명소 방문 (National memorial park, liberty museum)

-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NCYB나 방글라데시 정치, 문화, 사회, 축제, 음식 등 전반적인 정보를 알 수 있었다. NCYB, 방글라데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한국에서는 찾지 못했거나 찾았어도 단편적이었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생소한 정보들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 방글라데시어 수업

이 곳에서 한 달간의 생활을 미루어 보았을 때 진주 지역 훈련에서의 방글라데시어 수업이 유용하였지만 인사나 자기소개 등 간단한 회화 위주의 수업이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현지에서 직접 부딪히며 터득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었다.

활동 내용_Savar_orientation bangladesh

- 사바르 현지 교회에서 지역 청소년들과의 만남

사바르에서 현지 코디네이터 존이 살고 있는 마을과 교회를 방문하면서 지역 청소년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비리시리에 와서 생활하는 동안 이곳 사람들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좋지만 안전 때문에 아 띠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표본이 주로 비리시리에 살고 있는, 기독교, 가로족 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유스들과의 만남은 가로족이 외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더욱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방글라데시를 느껴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을 충족 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만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아 띠들이 현지인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서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앞으로의 4개월 동안 이러한 자리도 종종 있기를 희망한다.

- 방글라데시 National memorial park, liberty museum 방문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알게 된 방글라데시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많이 닮아 있었다. 다만 우리가 PPT를 통해 볼 수 있었던 것들은 폭 넓은 역사를 말해줄 수는 있어도 직접 와 닿지 않았는데 방글라데시 National memorial park, liberty museum을 방문하면서 이들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사진, 동영상 등의 전시물을 통해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팀 소개-월간 일정-**활동 내용**-방 팀 이야기-개인 소감

활동 내용_Savar_orientation bangladesh(Pictures)

- 사바르 교회에서 현지 청소년들과



- National memorial park 방문



활동 내용_Birisiri_Work at Dahapara NFPS school

-다하파라대안 학교 간단 소개

아띠들이 활동하고 있는 다하파라대안학교는 숙소인 비리시리 YMCA에서 자전거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인도 국경 근처에 위치한 다하파라 지역에 있다. 도쿄 YMCA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현재 비리시리 YMCA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교생이 4세-10세이며 30명 정도인 작은 학교이며 총 3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아띠들은 이 곳에 주 3회(월, 화, 목) 출근하여 영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번 기수에는 현지 학생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예체능 수업 (클레이 등 다양한 교구를 이용)과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과목 (수학, 영어) 위주에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다하파라대안 학교에서

보고서를 쓰기까지 아직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곳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활기차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가득한지, 호기심이 많은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한국에 비해, 아니 현지 지역의 다른 학교들에 비해 열악한 수업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위한 열의 만큼은 매우 열성적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간 수업 계획과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아띠들의 실력에 대해 많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보다 완벽하게 준비해야 함을 팀원 모두가 통감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보다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선생님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활동 내용_Birisiri_Work at Dahapara NFPS school (Pictures)



활동 내용_Birisiri_Work at Dahapara clinic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하파라 클리닉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간단한 진료와 처방, 다양한 질병, 건강 상식들을 알려주고 있다. 현지 병원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에 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다소 낮다는 점에 착안하여 방팀 아띠들이 10월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될 빈곤퇴치 캠페인의 취지와 일부 부합하기에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 내용_Birisiri_share korean culture _chooseok

- 추석 나눔 행사를 마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 하는 비리시리 YMCA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명절 '추석'을 소개하고 송편 만들기, 풍등 날리기, 한국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를 나눔으로써 문화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를 취지로 시작하였다.

쌀가루와 깨, 설탕만으로 처음 빚는 송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들 둘러 앉아 제각기 모양을 한 송편을 만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찜통을 구하고, 아궁이의 연기 속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송편을 찌낸 것. 각자 자신들의 소원을 적은 풍등이 결국 중간에 활활 타버렸지만 나보다는 서로를 위해, 소중한 소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쓰던 기억들은 우리들과 비리시리 청소년들과의 소중한 추억이자 친해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처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행사여서 미흡한 점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문화를 나누고 서로 함께 웃으며 즐겼다는 점. 우리들과 그들 사이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다음에 아띠들이 진행할 행사에서는 보다 지금 보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하겠다. :D)

활동 내용_Birisiri_share korean culture _chooseok (pictures)



팀 소개-월간 일정-**활동 내용**-방 팀 이야기-개인 소감

활동 내용_Birisiri_share korean culture _chooseok (pictures)



활동 내용_Birisiri Gardening

- 텃밭 가꾸기에 대한 간략 설명

비리시리 YMCA 본관 우측 정문 좌측을 기준으로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 라온아띠가 작게 텃밭을 가꾸고 있다. 현지 작물과 한국 작물을 함께 파종하였으며 이 곳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YMCA 청소년들과 함께 YMCA 관계자들에게 판매하여 남은 수익금으로 비리시리 YMCA 청소년 활동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 텃밭 가꾸기 9월을 보내며

사실 텃밭 가꾸기는 시작부터 팀 내에서도 활동을 진행해야 할 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라온 아띠가 처음 시작한 만큼 끝도 맺어야 한다는 의견과 수익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는 의의 때문에 시작하였다. 농업교육과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팀원 대부분이 실전 경험에 있어서는 전무한 상태. 우여곡절 끝에 현지 청소년들의 도움을 받아 잡초가 무성한 땅에서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뒤엎고, 고랑을 파서 몇 일 전 몇 가지 작물을 파종하였다. 더운 날씨에 처음 해보는 농사일에, 열악한 장비에 다들 힘들어하였지만 (사실 현지 청소년들이 많이 도와주었다.) 아띠들이 먹는 작물들을 우리 손으로 직접 기르고, 땀 흘리는 농부의 보람. 작은 씨앗에서 자라는 작물의 모습 보면서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팀 소개-월간 일정-**활동 내용**-방 팀 이야기-개인 소감

활동 내용_Birisiri_Gardening (pictures)





방글라데시 팀 이야기

방 팀 이야기_우리의 버리지 못한 습관들. 친구가 되는 길에서

- 우리의 버리지 못한 습관들. 진정한 친구와 위선자의 사이에서

얼마전 아띠들은 다하파라 학교 선생님과 함께 가정 조사를 나갈 기회가 있었고 그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한 달에 원화로 2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해 나아가고 있던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을 보면서 지난 한 달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나 부끄럼이 앞선다. 스스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고 오자고 결심했지만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과 상황 속(사실 현지 친구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여건임에도)에서 힘들어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 스스로에게 부끄럼이 앞서고 있었다. 굳것질로, 쇼핑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행동들이 현지 친구들에게 벽을 쌓고 멀어질 수 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한편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교를 그만 다녀야 할 지도 모르는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보자 다가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위선이 아닌지 고민해본다. 아띠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친구들에게 많은 괴리감을 안겨줄 수도 있음에 책임감을 느끼며 과연 우리는 남은 4개월 동안 그들에게 위선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많은 생각이 든다.

방 팀 이야기_추석 나눔 행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 추석 나눔 행사. 최선을 다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얼마전 아띠들이 진행했던 추석 나눔 행사에 대하여 반성과 고민들이 있다. 서로의 문화를 나누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고 현지 유스들 역시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좋은 행사였다고 평하였지만 아띠들의 행사 준비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송편, 엉성한 프리젠테이션, 불타버린 소원 풍등까지)가 미흡하여 아쉬움이 컸다. 취지는 좋았으나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무책임함을 보인 듯 하다. 사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활동에 임했고, 이러한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들의 결과물들이 행사 당일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준 유스들에게 많은 미안함을 느끼며, 큰 반성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타산지석 삼아 다음 행사에 있어서 현지 친구들에게 정말 유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방글라데시에서 한달
그리고 개인 소감

개인 소감_슈보_노정래 단원

9월 동안은 방글라데시를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언어를 배우고 문화 환경 전체적인 것을 공부하면서 적응 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과 현지는 많이 달랐다는 것이었다. 한달 동안의 준비와 전 기수들의 이야기에 도 불구하고 역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처럼 내가 직접 격어 봐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youth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정말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많은 것을 알려주며 나 또한 노력하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밝은 웃음을 보여주면서 나 또한 밝은 웃음이 보이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다.

난 운동을 좋아해서 특히 현재 방글라데시는 풋볼 시즌이라서 거의 매일 풋볼을 하고 싶었고 열심히 참여 하였다. 축구를 하면서 youth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말을 하면서 천천히 친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축구 빅 매치가 있으면 나를 찾아와 함께 하자고 할 때는 정말 행복했다. 앞으로 남은 4개월이 더 기다려지는 한달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보낸 거 같다.

개인 소감_오심_최지현 단원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이리저리 바꿨던 한국의 삶에서 벗어나 내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으며, 내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뒤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익숙해지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이 곳에 오기 전 나는 지인들에게 '현지인들과의 관계는 기대되지만 환경적인 부분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었지만 이 곳에서의 삶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기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내심 수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지금도 내가 한국에서 지냈던 생활들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하나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고, 내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며, 이 곳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항상 사람이나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보았던 습관들-을 보게 되었으며 그릇된 생각들을 바꾸고 조금씩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정신 없었던 한 달이었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 그리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이 곳 친구들과의 관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남은 날들이 무척이나 기대되며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에,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개인 소감_오토이_김도은 단원

방글라데시에 대해 처음 들었던 것은 초등학교 시절 사회과부도에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소개되어 있던 것을 잠깐 보았을 때였다. 초등학교 이후 잊혀져 나가는 전혀 관계가 없을 줄만 알았던 이곳에서 5개월간 생활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설레기도 할 터인데 이상하리만큼 긴장도 설렘도 없이 도착하여 사실 이렇게 무감각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많았다. 하지만 이곳에 도착한 이래 매일매일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에 감동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면서 그 동안 굳어져 있던 마음이 풀리고, 무뎠던 감정들이 다시 그 색과 모양을 나타내는 듯 하다. 국적, 생김새, 언어의 다름을 넘어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순수한 우정과 사랑을 느끼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이곳 친구들과로부터 눈빛으로, 표정으로, 노래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것이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닫고 있는 중이다. 아직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 사람과 환경에서 전이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와야겠단 각오는 아로새겼다.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방글라데시에서의 한 달은 새로움의 연속이었다. 매일 매일 새로운 것을 접하고,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였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도 같이 있기만 해도, 얼굴을 보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동물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 나였기에, 전공을 선택할 때도 동물을 생각해보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동물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문밖을 나서면 많은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애정이 가기 시작했고, 그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이 재미있어졌다. 내가 싫다고 했던 것들이 싫은 것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방글라데시의 역사를 배우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왜 세계사를 공부할 때 아시아 쪽 역사에는 흥미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그 두꺼운 세계사 책에 대부분은 서양의 역사이고, 정작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의 역사는 몇 페이지 밖에 안될까? 유럽위주의 역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 한번이라도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부했을까? 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갖지 않았을까? 십자군 전쟁을 유럽의 시선이 아닌 셀주크 튀르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많은 궁금증이 생겨났고, 무심코 지나쳤던 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저 교과서에 나온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옳다고만 생각했던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적인 사고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돈노밭!